

주가	환율	금리
+9.43	+3.50	-0.01
1,238.05 (코스피지수)	959.60원 (원/달러)	5.03%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60.92 (+1.55)	
다우(23일)	10,989.09 (-30.02)	
나스닥(23일)	2,121.47 (-1.51)	
닛케이	15,152.40 (+28.36)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6.30엔 (-0.17)	
유로 달러 환율	1.2512달러 (-0.52)	
3년만기 회사채	5.30% (-0.01)	
클레리	4.21% (+0.01)	

농협전남본부, 자매결연마을 14억 지원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교류활성화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체결 마을에 대한 편의시설자금으로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마을대표자와 주민들이 지역개발에 대한 의욕이 강하고 마을대표자가 농촌사랑지도자교육을 이수한 마을로, 자매결연 체결 후 연 4회 이상 자매결연 교류를 실시한 마을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마을편의시설지원으로 공동취사장·사위시설·원두막·화장실·주차장 등이며, 자매결연 교류활성화를 위한 직거래시설 및 장비지원, 주말농장 조성 및 운영, 방갈로·체류형 간이숙박시설 조성 등에 사용해야 하며 마을당 5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마을은 총사업비 3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절차는 지역농·축협과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농협·군지부 경유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도지역본부, 중앙본부의 심의를 거쳐 7월께 지급된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관세행정 길라잡이' 배포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관세행정 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했다.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통관의 이해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5개 관세행정 ▲만원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는 전자정부 ▲알아두면 유용한 유관기관 지원책 ▲고객을 기다리는 관세행정 참여방 등 5부로 구성됐다.

또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지원책 및 연락처 등 중소기업지원 체계를 안내하고 있다.

관주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 개설을 위해 관주세관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방'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합동설명회 및 합동 블로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 한 창구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시장이 대립각을 세우며 꽤나 혼란스러웠다.

재건축 규제를 골자로 한 3·30종합대책에 이어 정부 관료들이 '버블(거품) 논쟁'을 벌였으며, 5·31지방선거 참패 후에는 여당에서 '부동산정책 재조정'을 들고 나와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

광주·전남지역은 정부의 잇따른 정책 발표와 최근 비수기라는 계절적인 영향까지 맞물리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광주·전남 등 지방시장 '침체'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일단 침체 속 안정세로 요약된다.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상승 분위기가 크게 반전되는 등 하향안정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크게 위축된 상황이

정부 강도높은 규제... 매수 실종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 실제 지난 4월 이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시장에 미분양 물량 증가 및 매수세 실종 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광주·전남의 신규 미분양 물량은 각각 996가구, 1천604가구 등 총 2천600세대에 달하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에 신규분양 물량이 쏟아지기 직전인 지난 3월 2천999세대보다 24%(501세대) 증가한 수준이다.

이처럼 미분양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강도높은 정책 속에서 울타리 신규분양이 이어지면서 수요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또 '버블 경고' 등 수도권을 겨냥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지방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도 미

광주·전남 신규 미분양아파트 2,600세대 적체 대출제한·금리인상 등 악재... 하반기 더 위축될 듯

분양 물량 적체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시장은 '혼란' =정부는 지난 2월 집값 불안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3월 30일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도입과 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한 대출요건 제약 등이 골자다.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제는

위험논란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여 입법화했다. 그러나 DTI 적용방안은 시행 한달간 수차례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재건축 부담금은 적용기한이 10년으로 정해지는 등 곳곳에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 고위 관료와 청와대 인사 등의 '업포'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의 업포성 발언은 5월 국정브리핑에서 강남, 서초 등 집값 급등 지역을 '버블세븐'으로 지목하면서 '버블논쟁'을 촉발하는 등 시장을 혼란케 했다.

◇하반기 '하향 안정세' 전망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선거 이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의지가 꺾이지 않았고, 대출 제한이나 금리 인상 등의 악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8·31, 3·30 대책의 후속입법들이 줄줄이 시행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내달 12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9월 25일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8·31때 만든 보유세제도 7월 재산세 고지분부터 현실화된다.

여기에 현재 금융권에서 일고 있는 대출제한 조치와 금리인상 움직임 등이 규제책과 맞물리면 충격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나무골 담양 특산물전. 광주신세계는 오는 29일까지 식품관에서 '대나무골 담양 특산물 기획전'을 마련, 대입분말·대입차·대나무 맥주컵·부채 등 다양하고 이채로운 대나무 제품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금호렌터카, 中 칭다오법인 설립

베이징 진출 이어 두번째·중국내 네트워크 강화

국내 최대의 렌터카 업체인 금호렌터카(대표 이삼섭)는 26일 중국 칭다오(靑島)에 법인을 설립,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업체 최초로 중국 베이징에 진출한 이후 두번째 법인이다.

이번에 설립된 칭다오법인은 외자합자법인으로 탄생한 베이징(北京)법인과

달리 순수한 금호렌터카의 독자법인이며, 전문 명칭은 '금호기차조임 유한책임공사(錦湖汽車租賃 有限責任公司)'로 영문 명칭은 'Kumho Rent-A-Car Co. Ltd.'이다.

금호렌터카는 이번 칭다오법인 설립으로 향후 중국내 렌터카 사업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삼섭 사장은 "칭다오법인 설립을 계기로 금호렌터카는 아시아 1위의 렌터카 회사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업한 금호렌터카 베이징법인은 현재 100여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칭다오법인은 북경올림픽이 개최될 2008년까지 현재 200여대의 차량 보유대수를 1천대 이상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금호렌터카는 올해 하반기에 선양(瀋陽)·상하이(上海)·톈진(天津) 등 중국 내 대도시에 추가로 진출, 각 도시당 1천대 이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금융민원 Q&A

동창회명의 예금통장

Q:개인명의 단체예금, 대출 상계처리 할수 있나?

A:단체확인서류 은행 제출때 상계처리 부당

Q: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2천만원을 받았지만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 이자를 못내게 됐다. 이에 은행측은 담보 부동산을 경매처분해 1천500만원을 회수한뒤 나머지 대출금은 내 이름인 '김○○(○○동기회)' 명의로 개설한 적금통장의 잔액 300만원과 상계처리해 회수했다. 내 개인예금이 아닌 단체의 예금을 대출과 상계한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A: 비영리단체인 동창회나 각종 친목단체 등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 감씨처럼 회장이나 총무 명의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단체이름은 통장 개설자 이름옆에 부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그 단체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 외에 동창회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단체의 회의록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반드시 은행에 제출해 단

체명의 예금이라는 확인을 받은 후 예금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이는 은행에서 동 예금이 단체명의의 예금이라는 표시를 함으로써 추후 예금주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예금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씨가 단체명의의 예금이라는 확인없이 예금주를 자신의 이름에 단체명만 부기한 '김○○(○○동기회)'로 하고, 은행은 감씨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한 후 예금통장을 개설해 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 상계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국번없이 1332>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대형 주택단지에서 분양가 40%까지 할인

1. 분양: 10월 10일 ~ 11월 10일

2. 임대: 10월 10일 ~ 11월 10일

3. 문의: 02-2600-1111

가정의 건강을 위한
세심합 속에는 신의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1. 공기정화: 99.9% 공기정화율

2. 냄새제거: 99.9% 냄새제거율

3. 항균기능: 99.9% 항균기능

4. 공기순환: 100% 공기순환율

5. 필터교체: 100% 필터교체율

6. 소음저감: 100% 소음저감율

7. 에너지절약: 100% 에너지절약율

8. 안전기능: 100% 안전기능

9. 디자인: 100% 디자인

10. 가격: 100% 가격